

여수 병설유치원서 집단감염…내일부터 3단계로 격상

원생·학부모 등 18명 코로나 확진…초등학교와 급식소 공동 이용
최초감염 불명 빠른 전파속도…조기 차단 위해 거리두기 전격 격상

여수지역 모 유치원 관련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이를 새 18명이 나오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급식소를 함께 쓰는 병설 유치원으로 확진자 추가 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 빠른 전파 속도에, 최초 감염 경로마저 밝혀지지 않자 방역당국은 조용한 전파를 막고, 확산세 조기

차단을 위해 오는 22일 새벽 0시부터 여수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지난 19일 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20일 오후 2시 현재 1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이로써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1838명이 됐다. 19일 신규 확진자 9명은 목포 4명(해외 입국자

1명 포함), 여수 3명, 화순 1명, 무안 1명이다. 20일 신규 확진자 16명은 모두 여수에서 나왔다. 이틀간 여수 확진자 19명 중 1명(전남 1816번)을 제외한 18명은 모두 여수 모 유치원 관련으로 조사됐다. 유치원에 다니는 5세 남아(전남 1814번)가 열이나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고, 19일 양성 판정이 내려진 데 이어 같은 날 그의 모친(30대, 전남 1815번)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이 유치원 원생 41명, 교사 11명에 대해 긴급 집단 검사한 결과 20일 낮까지 모두 1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은 원생 11명, 유치원 교사 1명, 여친초 1학년

학생 1명, 유치원생 가족 5명으로 나타났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유치원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두 시설이 급식소를 함께 사용해온 점이 확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자, 방역 당국은 코로나 집단 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나섰다. 초등학교 학생 597명, 교사 등 58명에 대한 전수 검사에 돌입한 것이다. 빠른 전파 속도에 최초 감염 경로마저 조기 파악이 어려워지자, 방역당국은 여수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키로 했다. 오는 22일 새벽 0시부터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 확산세 조기 차단에 나선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시와 협의를 거쳐 오는 22

일 새벽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결정했다”며 “시민 불편과 자영업자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빠른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확산세를 조기 에 억누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체제에서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현재 비수도권 전역의 사적 모임이 4명으로 제한돼 있어 변화가 없다. 그러나 유흥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을 금지된다. 식당, 카페 등의 경우 밤 10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돼 사적 모임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 50명 이상 행사도 금지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 대통령, 방일 무산 아쉬움…실무협의 계속

코로나 4차유행·청해부대 집단감염 “안이한 대처 비판 겸허히 수용”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기간 일본 방문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한 일 간 실무 협의를 계속할 것을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KBS 라디오와 TBS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은 한일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과거사, 수출규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현안을 두고 논의했다고 소개하면서 “(입장 조율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께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 약간 못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안에 대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도 어제 실무협의를 더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수석은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올림픽 후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전날 일본에 가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하면서 “아쉽다”며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양국 정상이 언제든 만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 수석은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해 정부가 방역완화 메시지를 성급하게 내놓은 것 아

니나는 지적에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모든 것을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권의 기보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기 기획관 개인이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청해부대원들이 전원 국내로 돌아온다. 부대원들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제가 타는 부모님들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차체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코로나 집단감염 청해부대 귀국

20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귀국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천400t급)의 장병들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흑산공항 건설 1차 관문 ‘국립공원 총괄협의회’ 23일 개최

관련 부처·신안군, 사실상 의견 일치 통과 가능성

흑산공항 건설로 가는 1차 관문 격인 국립공원 구역조정 총괄협의회가 오는 23일 개최된다. 흑산공항 건설 예정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대체부지를 제공기로 한 데 대해 관련 부처, 전남도, 신안군이 사실상 의견 일치를 보인 것으로, 공항 건설로 가는 최종 관문 격인 국립공원위원회에 총괄협의회가 안건을 공장 상정할지 주목된다. 20일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23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련 구역 조정 총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 안건 목록에는 흑산공항 관련 안건도 올랐다. 신안군은 지난 3월 정부에 흑산공항 예정지의 국립공원 해제, 대체 편입 지역 등을 담은 ‘국립공원 구역조정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흑산면 예리 공항 건설예정지와 인근 도초, 비금, 흑산면 일대 249만299㎡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지도읍 선도 갯벌 공유수면과 도초 비금면 일대 557만

219㎡를 국립공원으로 대체 편입하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안에 대해 해수부가 ‘선도 갯벌이 이미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국립공원 대체 편입의 실효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신안군이 갯벌이 아닌 명사십리 해수욕장 등 해안을 새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흑산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흑산공항 건설 예정지(국립공원구역) 대체 부지를 놓고 신안군, 전남도,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이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

며 “23일 총괄협의회에서 다른 안건들과 함께 다뤄지며, 통과될 경우 사실상 최종 관문 격인 국립공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에 50인 탑승 소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소형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활주로 연장 1.2km짜리 공항 건설을 위해 국비 1833억원을 투입한다. 흑산도 및 인근 부속 도서 주민에게 교통기본권을 제공하고, 서남해안 해양주권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폭염피해 최소화 총력…121억 지원

전남도가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모두 121억원의 대책비를 세우 22개 시·군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는 20일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5월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실태점검을 하면서, 지난해 65억원보다 48억원 증가한 도비 113억원과 특교세 8억원 등을 시·군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까지 폭염 대책 기간 중 체계적인 대처를 위한 상황관리 등 비상대비체제도 가동 중이다. 피해 최소화와 밀접접촉 완화를 위해 도민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실내의 무더위쉼터를 기존 8170개에서 8434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고,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옥상녹화 등도 확충하고 있다. 경

로당, 마을회관 등 실내 무더위쉼터에는 어르신이 더위를 피하도록 냉방비와 수리비 18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높겠다고 예보됨에 따라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 17만3000명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생활지원사, 이동장 등 재난도우미 2만4000명을 활용, 매일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 중이다.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와 임시 선별검사소에선 대기자에게 그늘막, 선풍기 등 냉방물품을 지원한다. 검사 인력에게는 냉풍기, 쿨스카프 등 냉방물품을 제공하고, 휴식시간도 보장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임야, 단독섬
삽니다. 010-6837-4700

금매물과 경매물건에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장성 토지 (매매 분양)	상가매매 (상무지구)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토지평수 (150, 200, 500, 1800)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010-6670-9800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3천 (용 4억) 2) 월수익 300만 (보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 6층 평수 80평 매가4억5천(용 2억6천) ● 7층 평수 60평 매가 2억 3천 (용 9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배, 유출,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